



평화학의 창시자

# 요한 갈통

(Galtung, J., 1830 ~)

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평화학자 요한 갈통입니다.  
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출생한 요한 갈통은  
1964년 세계 평화학회를 발족하였습니다.

또한 1970년대 이후 남북한을 수십 회 방문하여  
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했으며  
특히 한국의 여러 대학을 찾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 
직접 평화에 대한 강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.

< 갈통>은 자신의 저서 『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』에서  
평화에 대한 정의를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인 ‘소극적 평화’와  
모든 사람이 자유·평등·정의 등의 원리에 따라  
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‘적극적 평화’로 구분하였습니다.

요한 갈통의 평화에 대한 정의는  
현대인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 
생각할 기회를 줍니다.

“중요한 것은 평화를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 
말하고, 쓰고, 평화를 만들도록  
기여하고, 건설하고, 지키는 것입니다.”

